

종합·해설



문재인 이해찬 김두관 김한길 손학규 조정식 정동영 이종걸 정세균 강기정

민주 전대 사흘 앞으로...속타는 대권주자들

대선거도, 연대후보 성적표에 달렸다

런닝메이트 지원 수도권 대의원 집중 마크

모바일 선거인단 모으기 등 물밑행보 분주

민주전대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도부 경선 결과를 둘러싸고 당내 대선주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당권 후보들과 대선 주자들과의 짜릿기(런닝메이트)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경선 결과는 그들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후보들은 물론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당내 대선주자들은 연대하고 있는 당권 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대의원을 집중 마크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선거인단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물밑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모 대선 후보 측에서는 서울 및 경기지역 광역의원들과의 접촉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대선

후보 측에서는 모바일 선거인단을 많이 모은 것을 알려진 자치단체장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것은 당권 후보들과의 연대가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경선 성적표'가 대권 가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대권 주자와 당권 후보와의 연대 구도는 문재인-이해찬, 김두관-김한길, 손학규-조정식, 정세균-강기정, 정동영-이종걸 등으로 표면화됐다.

우선 문재인 의원은 이해찬 후보가 지도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

할 경우, 대권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문재인 의원이 그동안 이해찬 후보와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해찬 후보가 당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결국 문재인 의원의 대권 가도에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상황은 마찬가지. 그동안 측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길 후보가 당권 장악에 실패할 경우, 대선 출마 선언 시기 등 전반적인 대권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세균-강기정 조합은 그런대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 정세균 의원 측에서는 강 후보가 지도부 경선에서 3

위를 하면 최상이며 4위를 해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5위로 처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막판 당내의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학규, 정동영 교문은 필사적이다. 그들이 각각 밀고 있는 조정식, 이종걸 후보가 하위권으로 처져 있기 때문이다. 지지하는 후보가 지도부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할 경우, 그들의 당내 영향력은 더욱 위축되면서 대권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9일 발표되는 지도부 경선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관계의 변화는 물론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의 희비도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 결과에 따라 당내 대권주자들의 입지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전당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대선 경쟁은 본격적으로 접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박혜자 의원 교수 사직 폴리페서 논란 불식 "정치전념"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최근 교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폴리페서 (Polifessor·정치참여교수) 논란을 불식시켰다.

5일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몸담았던 호남대를 방문, 교수직 사직서를 낸 뒤 전업 정치인을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학기까지 호남대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3과목(학부생·대학원생)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쳐왔으며, 4·11 총선 운동기간과 당선된 뒤에도 계속 교수직을 유지해 논란이 돼왔다.

하지만, 박 의원은 휴직계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다수 폴리페서들이 의원 임기를 마친 후 강단에 돌아갈 것에 대비해 휴직계를 내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사직서를 냈기 때문이다.

전업 정치인이 된 박 의원은 앞으로 지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임기 4년간 교수직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모두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했다"며 "이번 학기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하는데)시간이 조금 늦어졌다. 4·11 총선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곤 결강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때문이다.

전업 정치인이 된 박 의원은 앞으로 지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임기 4년간 교수직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모두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했다"며 "이번 학기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하는데)시간이 조금 늦어졌다. 4·11 총선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곤 결강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파행 19대 국회...첫 본회의 무산

박지원 "핵심 상임위 하나는 받아야" 새누리 "임수경 징계해야"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대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타결 후 등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갔으나 1시간 만에 모두 자리를 떴다. 국회의장단 선출도 자동으로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원구성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데다 중복 주

사과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문제에 이어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에 대한 막발 발언 파문까지 겹치면서 정국은 한층 더 꼬일 공산이 크다.

양당은 현재 상임위원장(총 18개) 배분과 관련해 새누리당 10개·민주당 8개의 비율로 가닥을 잡았으나 법사위와 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외통위원장을 국가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방침 속에 여당이 맡았던 정무위와 국토위, 문방위 3곳 중 하나를 쥐어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등 핵심 상임위 가운데 하나를 받지 않으면 본회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당은 또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새누리당), 징계불가(민주당)로 맞서는 형국이다.

이 같은 여야 대치 속에 19대 국회가 임기 개시 42일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北문제 입장 명확히 하자"

통합진보 특위, 중복 논란 토론회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2차 토론회를 열어 중복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발제문을 통해 중복 비판에서 벗어나고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당 출신의 천호선 새로나기 특위 의원은 "자주를 반미자주화로, 통일을 북의 현실을 무조건 존중하는 것으로, 평등을 산업시대의 노동계급 중심성으로 제한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당연히 반대한다"며 "현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보편적 관점에서 이는 분명히 반민주적인 권력교체"라고 말했다.

"진보시진 2" 운동이 필요하며 폭력시대 이후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진보성향의 학자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이론, 현실, 국내정치 어느 면에서나 북한에 대해 객관적 태도를 취하는 게 자주성과 통일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북한의 전략은 '생존을 위한 치킨게임(벼랑전술)'으로 이를 '사슴사냥 게임(사슴을 잡고자 한다면 협력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바꿔야한다"며 "이를 옹호하는 건 논리적으로나 현실 상황으로나 오류"라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석기 "의원직 사퇴 않겠다"

"제명은 입법살인...철저한 진상조사" 주장

정몽준 전 대표 "의원 제명문제 신중해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5일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의원단 총회에 참석하려고 국회 본청에 들어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는 일관되게 선(先)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해 왔다"며 "현재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명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유신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며 "박정희의 군사독재가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한 민주 인사를 사법살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명) 입법부의 임의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편,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은 격정스럽지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두 의원을 제명하는 문제는 통합진보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확실한 증거 없이 어느 특정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의견은 이 분들이 비례의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이 중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민주통합당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동참하면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투자

▶ 경매비법 배우면서 수익 내실분
▶ 입찰반4명 / 이론반 24명
▶ 주 1회 / 3개월 완성

투자자 모집 / 1억원 이상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